

제주도내 고등학생들의 여가실태 조사연구

김 명 경¹⁾ · 임 상 용²⁾

An Analysis of the Real Situation of Male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Leisure Activities in Cheju-do

Kim, Myung-Kyung · Ihm, Sang-Yong

ABSTRACT

This paper is designed to search for measures to form the healthy leisure culture of the young and to provide basic material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f juveniles' leisure culture. With this in mind, I conducted a questionnaire research of academic an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analyzing the collected data with the help of SAS programs.

First, in regard to the real situation of the leisure activities of the young, they spend their time in watching TV or in listening to radios save the time for study. Their leisure time lasts from 1 hour to 4 hours during the weekdays, and lasts for more than 5 hours on holidays. They share their leisure time with their friends, spending their pocket money on candies and on eating between meals. They turn out to meet their friends on holidays, talking about sports or fashions. They spend more than one hour on TV. They spend their vacation on pursuing their hobbies or taking a rest. They prefer basketball and football, and most of them join in the activities of literature and amusement.

Second, in respect to the satisfaction of the juveniles as to leisure activities, they hold that club or circle activities will lead to the improvement of human relationship. And yet, they are more or less unsatisfied with their lives of leisure on account of their ignorance of the way the leisure time should be properly spend and of the lack of places for leisure activities. Their parents have a low understanding of the leisure activities of the young.

Last, in regard to the juveniles' need for leisure facilities and activities, they turn out to engage in part-time jobs, hoping that amusement facilities will be spread, around which they hope the theaters only for the young will be expanded. They understand that facilities for leisure and a variety of conditions in which they can have leisure should be urgently created. The majority of students have never undergone any instructions on leisure activities, thinking lowly of school education in terms of their contribution to a life of leisure.

1) 제주추자중학교 교사

2) 제주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On the basis of this research, it is highly necessary that programs for the young to resort to as leisure activities should be created and that education on leisure should be facilitated through school education. And I should like to suggest that facilities and space for leisure activities should be expanded for the young.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산업화와 도시화로 특징 되는 현대사회에서 청소년은 급격한 사회변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사회 구조적 역할 기능의 측면에서 볼 때, 과거의 청소년에 비해 현대 청소년 집단은 주변인적 위치에 보다 오래 머물면서 힘겨운 사회화의 학습을 강요당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그 의미와 중요성이 더욱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아동기를 거쳐서 성인이 되는 과도기로서 발달과정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로 인해 갈등, 정체감 혼란 등을 겪고 있다. 따라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심한 변화기에 있는 청소년 고등학생들이 자신에 맞는 여가를 선용함으로써 자신의 생활에 새로운 활력소를 얻을 수 있으며, 보다 확고하게 자기 자신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청소년은 여가 활용을 통해서 인간관계의 개선, 창의력 신장, 심적 갈등 해소, 교육 기회의 계속적 제공, 정서적 안정 등 학교생활에서 충족될 수 없는 문화적, 심리적·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청소년에게 있어서 여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우리 나라 청소년들은 여가시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여가를 학교생활 불만의 분출구로만 여기고 있는 실정이므로 오히려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여가시간에 주로 일어나며, 여가시간이 많을수록 비행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한 청소년들은 제대로 여가를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다.

이러한 심리적 부적응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개인이 정서적·인지적 발달과정에서 어느 단계에 있는가에 따라서 적응문제의 구체적인 표출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여가선용이 바람직하지 못함에 따라 청소년들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범죄 및 비행을 예방하고, 그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제주도내 청소년들의 여가실태와 여가의식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문화 형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여가문화 정착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제주도내 제주도, 서귀포시, 남·북제주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인문계·실업계 고등학교 남

녀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 학교는 지역별로 하며, 인문계 남 4개교, 여 4개교 · 실업계 남 4개교, 여 4개교 합 16개교로 각 학교 학생 인원을 40명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해당 학교의 체육교사의 협조하에 1999년 12월 1일에서 12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64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모두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자료를 모두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이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50%로 동일한 분포를 보였으며, 생활수준별로는 중상과 중하가 각각 50%로 나타났다. 보호자 학력은 고졸이 5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졸, 전문(대졸) 이상, 국졸 순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인문계 학생과 실업계 학생이 50%로 동일한 분포를 보였고, 지역별로는 제주시 거주자가 50%로 가장 많았으며, 서귀포시와 남/북제주군에 거주하는 학생은 25%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질문지의 작성은 선행 연구 및 참고문헌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 맞게 질문지를 제작하여 연구자가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걸쳐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표 -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문항, 여가활동 실태 13문항, 여가활동 만족도 4문항, 여가선용 욕구 6문항으로 총 2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의 처리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성별, 생활수준, 보호자의 학력, 종교, 계열, 지역별로 여가활동의 실태와 만족도, 여가시설과 여가활동 욕구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분할표의 χ^2 (Chi-square) 검증과 등간 척도로 측정된 만족도 문항은 일원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여가시간과 활동 실태

1) 여가시간

(1) 공부 외 시간 활용

공부하는 시간 외 청소년들의 시간 활용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공부하는 시간외에 TV나 라디오를 청취하는 학생이 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자오락 12%, 독서 및 영화감상 8%, 스포츠 5%로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학생들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로는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공부하는 시간 외 전자오락과 스포츠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 TV나 라디오, 독서 및 영화감상을 더 많이 하고 있었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83.746$, $p<.001$). 그러므로, 성별에 따라서 공부시간 외의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

계열별로는 인문계 학생들은 실업계 학생에 비해 공부하는 시간외에 독서나 영화감상을 더 많이 하고 있었고, 실업계 학생들은 인문계 학생들에 비해 TV와 라디오 청취, 전자오락을 더 많이 하고 있었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20.677$, $p<.001$). 그 외 생활수준, 보호자 학력,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주로 공부하는 시간외에 TV나 라디오를 청취하는 학생이 많았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청소년들은 주로 TV나 라디오를 청취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인문계 학생보다는 실업계 학생이 TV나 라디오를 청취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학생이 많음을 알 수 있다.

(2) 평일 여가시간

청소년들의 평일 여가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평일 여가시간이 1~2시간인 학생이 3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4시간 29%, 5시간 이상 16%, 1시간 이내 15%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일에 여가시간이 없는 학생도 1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학생들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로는 남학생들은 1~2시간 이내인 학생이 가장 많은 반면에 여학생은 3~4시간 이내인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6.833$, $p<.01$). 따라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평일 여가시간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보호자의 학력별로는 보호자의 학력이 국졸이나 중졸인 학생은 평일 여가시간이 3~4시간 이내인 학생이 가장 많은 데 비해 보호자 학력이 고졸 이상인 학생은 여가시간이 2시간 이내인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21.429$, $p<.05$).

계열별로는 인문계 학생들은 평일 여가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가 가장 많은 데 비해 실업계 학생들은 평일 여가시간이 3~4시간 이내인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87.876$, $p<.001$). 그 외 생활수준, 지역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들은 평일에 1~4시간 동안 여가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보호자의 학력이 고졸 이상인 학생과 실업계 학생이 여가시간이 더 많았다.

(3) 휴일 여가시간

청소년들의 휴일 여가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휴일 여가시간이 5시간 이상인 학생이 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4시간 27%, 1~2시간 9%로 나타났으며, 여가시간이 없는 학생은 2%로 되는 것을 볼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휴일에는 여가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학생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먼저 보호자 학력별로는 보호자의 학력이 국졸이나 중졸인 학생은 휴일 여가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가 많았고, 보호자의 학력이 고졸이상인 학생은 휴일 여가시간이 4시간 이내인 경우가 많은 것을 볼 때, 학부모의 학력이 낮은 학생들의 휴일 여가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chi^2=29.306$, $p<.01$).

계열별로는 인문계 학생은 실업계 학생보다 휴일 여가시간이 1~2시간, 3~4시간인 경우가 많았으며, 실업계 학생은 인문계 학생보다 휴일 여가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볼 때, 인문계 학생보다 실업계 학생들의 휴일 여가시간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chi^2=20.677$, $p<.001$). 그 외 성별, 생활수준,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휴일 여가시간은 5시간 이상인 경우가 많았으며, 보호자의 학력

이 고졸 이상인 학생과 실업계 학생의 여가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4) 공휴일과 일요일 시간 활용

청소년들의 공휴일과 일요일 시간 활용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전체적으로는 휴일이나 일요일에 친구를 만나는 학생이 5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사 돌보기 13%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독서나 공부, 교회나 성당, 절을 다니는 학생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학생들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휴일이나 일요일에 친구를 만나는 학생이 많았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가사를 돌보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chi^2=35.713$, $p<.001$).

보호자 학력별로는 보호자의 학력이 중졸이나 고졸인 학생은 휴일이나 일요일에 친구를 만나는 경우가 많았고, 보호자의 학력이 국졸인 학생은 가사를 돌보는 학생이 많았다. 또한 보호자의 학력이 전문대 이상인 학생은 휴일이나 일요일에 학과 공부를 하는 학생이 많았으며, 보호자 학력별로 차이를 보였다($\chi^2=39.075$, $p<.001$).

종교별로는 종교가 기독교인 학생은 휴일이나 공휴일에 교회에 다니는 학생이 가장 많은 반면에 천주교, 불교, 종교가 없는 학생은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친구를 만나는 학생이 가장 많았다. 또한 종교가 불교 혹은 없는 학생은 기독교나 천주교 학생에 비해 집안 일을 돕는 학생이 많았다($\chi^2=178.800$, $p<.001$).

계열별로는 인문계 고등학생은 실업계 학생에 비해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독서나 학과공부를 하는 학생이 많았으며, 실업계 학생은 인문계 학생에 비해 친구를 만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71.804$, $p<.001$).

지역별로는 제주시 거주 학생은 다른 지역의 학생보다 학과공부를 하는 학생이 많았으며, 서귀포시 거주 학생은 다른 지역의 학생보다 휴일이나 일요일에 친구를 만나거나 가사를 돌보는 학생이 많았다. 또한 남/북제주군 학생들은 교회나 성당, 절에 다니는 학생이 많았다($\chi^2=41.015$, $p<.001$). 그 외 생활수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들은 휴일이나 공휴일에 친구를 많이 만나고 있었으며, 여학생과 보호자 학력이 국졸인 학생, 종교가 없고 인문계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가사를 돌보는 학생이 많았다.

2) 여가활동 내용

(1) 여가활동 대상

학생들의 여가활동 대상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친구와 여가활동을 하는 학생이 5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혼자 여가활동을 하는 학생 25%, 가족과 함께 12% 순으로 나타났으며, 선후배나 이성친구와 여가활동을 하는 학생은 많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학생들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로는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친구와 함께 여가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고,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혼자 혹은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었으며,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chi^2=43.371$, $p<.001$).

보호자 학력별로는 보호자의 학력이 국졸인 학생은 혼자 여가활동을 하는 학생이 많았으며, 보호자의 학력이 중졸인 학생은 친구들과 여가활동을 하는 학생이 많았다. 또한 보호자의 학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가족과 여가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1.305$, $p<.05$).

계열별로는 인문계 학생은 실업계 학생에 비해 여가활동을 혼자 혹은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실업계 학생은 인문계 학생보다 친구들과 여가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33.621$, $p<.001$).

그 외 생활수준,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들은 대체적으로 친구와 함께 여가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여학생과 보호자의 학력이 국졸인 학생, 그리고 인문계 학생은 여가활동을 혼자 하는 경우가 많았다.

(3) 친구들과 대화 주제

친구들과 있을 때 대화의 주제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친구들과 있을 때 스포츠나 유행 문제를 이야기하는 학생이 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성교제 27%, 학업이나 진로 문제 22%로 나타났고, 학비와 용돈, 정치와 사회, 시사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학생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학생들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로는 남학생은 스포츠나 유행 문제를 이야기하는 학생이 가장 많은 반면에 여학생은 학업과 진로문제로 대화를 가장 많이 나누고 있었으며,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37.998$, $p<.001$).

보호자 학력별로는 보호자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학생은 이성교제에 대해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보호자의 학력이 고졸 이상인 학생은 스포츠나 유행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다. 또한 보호자의 학력이 전문대 이상인 학생은 다른 학력의 소지자 보다 학업과 진로문제에 이야기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35.607$, $p<.01$).

계열별로는 인문계 학생은 실업계 학생에 비해 친구들과 학업이나 진로 문제, 스포츠와 유행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는 반면에 실업계 학생들은 이성 교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학생이 많았으며, 계열별로 차이를 보였다($\chi^2=58.445$, $p<.001$).

지역별로는 제주시에 거주하는 학생은 친구와 스포츠와 유행문제에 대해 가장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반면에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학생은 이성교제에 대해, 남·북제주군에 거주하는 학생은 학업과 진로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39.999$, $p<.001$). 그 외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스포츠와 유행문제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었으며, 여학생과 보호자의 학력이 전문대 이상인 학생, 인문계와 남·북제주군에 거주하는 학생은 다른 학생에 비해 학업과 진로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대중매체를 통한 여가활동

(1) TV 와 라디오 시청 시간

청소년들의 TV와 라디오 시청 평균 시간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평균 2시간 이상 TV나 라디오를 듣는 학생이 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2시간 30%, 30분~1시간 11% 순으로 나타났으며, TV나 라디오를 거의 보고 듣지 않는 학생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학생들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로는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TV나 라디오를 30분~2시간 동안 보는 학생이 많았으며,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2시간 이상 시청하는 학생이 많았다($\chi^2=20.065$, $p<.001$). 따라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TV 시청이나 라디오를 더 많이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인문계 학생은 TV와 라디오를 1~2시간 듣는 학생이 가장 많은데 비해 실업계 학생은 2시간 이상 보는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59.154$, $p<.001$). 그 외 생활수준, 보호자 학력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들은 TV나 라디오를 1시간이상 보고 있었으며, 여학생과 실업계 학생이 TV나 라디오를 더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방학 중 여가활동

청소년들은 방학 기간 중 여가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방학 중 학과 외 취미활동을 하면서 여가를 보내는 학생이 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심신 휴양 28%, 학교 공부 보충 12%, 진로를 위한 공부나 기술 자격 획득 11%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도 9%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학생들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취미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으나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많은 반면에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학교 공부를 보충하는 학생이 많았다 ($\chi^2=13.185, p<.05$).

계열별로는 인문계 학생은 실업계 학생에 비해 방학 중 여가시간에 학교 공부를 보충하는 학생이 많았으며, 실업계 학생은 진로를 위한 공부나 기술 자격 획득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많았다($\chi^2=68.876, p<.001$).

지역별로는 제주시 거주 학생은 방학 중 여가시간에 학교 공부를 보충하는 학생이 많은 반면에 서귀포시나 남/북제주군 거주 학생은 제주시 거주 학생보다 학과 외 취미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었다. 또한 남/북제주군 거주 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많았으며,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chi^2=21.059, p<.01$). 그 외 생활수준, 보호자 학력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들은 방학 중 학과 외 취미활동이나 심신휴양을 하면서 여가를 보내는 학생이 많았으며, 여학생과 인문계 학생, 제주시에 거주하는 학생은 학교 공부를 보충하는 학생이 많았다.

(3) 선호하는 스포츠 종목

청소년들이 스포츠 중에서 좋아하는 종목을 살펴본 결과는 <표-1>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스포츠 종목 중에서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1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축구16%, 배드민턴11%, 수영9% 순으로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학생들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로는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농구나 축구를 더 좋아하는 반면에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배드민턴이나 수영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18.74, p<.001$).

계열별로는 인문계 학생은 실업계 학생보다 농구를 더 좋아했고, 실업계 학생들은 축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1.505, p<.05$). 그 외 성별, 생활수준, 보호자의 학력,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들은 스포츠 종목 중 농구와 축구를 많이 선호하였으며, 여학생은 배드민턴을, 인문계 학생은 실업계 학생보다 농구를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1년간 독서량

청소년들의 지난 1년간 교과서 및 참고서 외 독서량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지난 1년간 교과서나 참고서 외 책을 1~2권 읽은 학생이 3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7권 이상 24%, 3~4권 21%, 없다 15%, 5~6권 9%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학생들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먼저 계열별로는 인문계 학생은 7권 이상 책을 읽은 학생이 가장 많은 반면에 실업계 학생은 1~2권 읽은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책을 읽지 않은 학생은 인문계 학생보다 실업계 학생이 더 많은 것을 볼 때, 인문계 학생들이 실업계 학생보다 책을 더 많이 읽고 있음을 알 수 있다($\chi^2=50.413, p<.001$). 그 외 성별, 생활수준, 보호자의 학력,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1〉 선호하는 스포츠 종목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계	χ^2 df p	
성별	남	7 (2.19)	8 (2.50)	11 (3.44)	97 (30.31)	7 (2.19)	92 (28.75)	11 (3.44)	11 (3.44)	13 (4.06)	-	6 (1.88)	2 (0.63)	55 (17.19)	320 (100.00)	218.74 12 0.0001
	여	18 (5.63)	5 (1.56)	13 (4.06)	24 (7.50)	65 (20.31)	9 (2.81)	48 (15.00)	12 (3.75)	30 (9.38)	20 (6.25)	8 (2.50)	8 (2.50)	60 (18.75)	320 (100.00)	
생활수준	중상	17 (5.28)	6 (1.86)	10 (3.11)	57 (17.70)	45 (13.98)	48 (14.91)	32 (9.94)	6 (1.86)	27 (8.39)	12 (3.73)	7 (2.17)	5 (1.55)	50 (15.53)	322 (100.00)	20.367 12 0.060
	중하	8 (2.52)	7 (2.20)	14 (4.40)	64 (20.13)	27 (8.49)	53 (16.67)	27 (8.49)	17 (5.35)	16 (5.03)	8 (2.52)	7 (2.20)	5 (1.57)	65 (20.44)	318 (100.00)	
보호자학력	국졸	5 (5.38)	1 (1.08)	3 (3.23)	17 (18.28)	11 (11.83)	14 (15.05)	7 (7.53)	6 (6.45)	6 (6.45)	1 (1.08)	2 (2.15)	1 (1.08)	19 (20.43)	93 (100.00)	30.419 36 0.731
	중졸	1 (0.87)	2 (1.74)	5 (4.35)	20 (17.39)	14 (12.17)	20 (17.39)	7 (6.09)	5 (4.35)	7 (6.09)	3 (2.61)	5 (4.35)	-	26 (22.61)	115 (100.00)	
	고졸	13 (3.87)	8 (2.38)	12 (3.57)	66 (19.64)	41 (12.20)	56 (12.20)	31 (9.23)	8 (2.38)	21 (6.25)	13 (3.87)	5 (1.49)	8 (2.38)	54 (16.07)	336 (100.00)	
	전문(대졸)이상	6 (6.25)	2 (2.08)	4 (4.17)	18 (18.75)	6 (6.25)	11 (11.46)	14 (14.58)	4 (4.17)	9 (9.38)	3 (3.13)	2 (2.08)	1 (1.04)	16 (16.67)	96 (100.00)	
계열	인문계	17 (5.31)	7 (2.19)	19 (5.94)	641 (20.00)	34 (10.63)	47 (14.69)	28 (8.75)	7 (2.19)	17 (5.31)	7 (2.19)	9 (2.81)	6 (1.88)	58 (18.13)	320 (100.00)	21.505 12 0.043
	실업계	8 (2.50)	6 (1.88)	5 (1.56)	57 (17.81)	38 (11.88)	54 (16.88)	31 (9.69)	16 (5.00)	26 (8.13)	13 (4.06)	5 (1.56)	4 (1.25)	57 (17.81)	320 (100.00)	
지역	제주시	13 (4.06)	3 (0.94)	14 (4.38)	68 (21.25)	28 (8.75)	46 (14.38)	32 (10.00)	12 (3.75)	24 (7.50)	9 (2.81)	7 (2.19)	4 (1.25)	60 (18.75)	320 (100.00)	17.994 24 0.803
	서귀포시	5 (3.13)	4 (2.50)	4 (2.50)	26 (16.25)	26 (16.25)	29 (18.13)	10 (6.25)	6 (3.75)	9 (5.63)	6 (3.75)	3 (1.88)	3 (1.88)	29 (18.13)	160 (100.00)	
	남·북제주군	7 (4.38)	6 (3.75)	6 (3.75)	27 (16.88)	18 (11.25)	26 (16.25)	17 (10.63)	5 (3.13)	10 (6.25)	5 (3.13)	4 (2.50)	3 (1.88)	26 (16.25)	160 (100.00)	
계	25 (3.91)	13 (2.03)	24 (3.75)	121 (18.91)	72 (11.25)	101 (15.78)	59 (9.22)	23 (3.59)	43 (6.72)	20 (3.13)	14 (2.19)	10 (1.56)	115 (17.97)	640 (100.00)		

1: 테니스·정구 2: 배구 3: 탁구 4: 농구 5: 배드민턴 6: 축구 7: 수영 8: 태권도
9: 볼링 10: 캠핑 11: 하이킹 12: 수상스포츠 13: 기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들은 1년에 책을 1~2권 읽는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인문계 학생이 실업계 학생보다 독서량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4) 집단 여가활동

(1) 가입 모임

청소년들이 가입하고 있는 모임의 성격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문예활동이나 오락활동에 가입하고 있는 학생이 3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봉사활동이나 종교활동 23% 스포츠 활동 10%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임에 가입하지 않은 학생도 28%로 비교적 많았다.

이에 대해 학생들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모임에 가입하고 있는 학생이 더 많았다. 가입하고 있는 모임에 대해 보면,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스포츠 활동에 많이 가입하고

있는데 비해 여학생은 문예활동이나 오락활동에 가입한 학생이 많았다($\chi^2=42.385, p<.001$).

지역별로는 제주시 거주 학생은 봉사활동이나 종교활동에 가입하고 있는 학생이 많은 데 비해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학생은 문예활동 및 오락활동에 가입하고 있는 학생이 가장 많았다. 또한 모임에 가입하지 않은 학생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다($\chi^2=23.621, p<.01$). 그 외 생활수준, 보호자 학력, 계열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들은 문예활동이나 오락활동에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었으나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스포츠활동에 많이 가입하고 있었다.

(2) 클럽과 씨클활동의 장점

클럽이나 씨클활동의 장점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클럽활동이나 씨클활동이 많은 사립을 통해 인간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3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새로운 경험을 통한 학습 기회의 제공 18%, 능력과 소질 발휘 17%, 건전한 오락을 즐길 수 있다 1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18%로 응답한 것을 볼 때, 일부 학생들은 클럽과 씨클활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로는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클럽이나 씨클활동이 건전한 오락이나 학습 기회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한 반면에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인간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였다($\chi^2=11.305, p<.05$).

계열별로는 인문계 학생은 실업계 학생보다 클럽이나 씨클활동은 인간관계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인식한 반면에 실업계 학생은 능력이나 소질 발휘, 건전한 오락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그런데 인문계 학생은 실업계학생보다 클럽이나 씨클활동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chi^2=15.394, p<.01$).

또한 지역별로는 제주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다른 지역의 학생보다 인간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많았으며, 남/북제주군 학생들은 능력이나 소질 발휘, 건전한 오락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많았다($\chi^2=18.751, p<.05$). 그 외 생활수준, 보호자 학력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들은 클럽이나 씨클활동은 인간관계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였으며, 여학생과 실업계 학생, 그리고 남/북제주군에 거주하는 학생은 능력과 소질 발휘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2. 여가활동 만족도

1) 여가활동의 필요성

청소년들은 여가활동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기분전환을 위해 여가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학생이 3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원만한 인간관계 및 사회적 자질 향상 26%, 심신 휴식 20%, 자기발전 19%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여가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4%로 비교적 적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로는 남학생은 기분전환을 위해 여가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은 반면에 여학생은 자기 발전이나 원만한 인간관계와 사회적 자질 향상을 위해 여가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chi^2=18.064, p<.01$).

생활수준별로는 생활수준이 중상인 학생은 원만한 인간관계 및 사회적 자질 향상을 위해 여가활동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였으며, 중하인 학생은 자기발전을 위해 여가활동이 필요하다는 높은 분포를 보였다($\chi^2=$

13.199, $p < .05$).

계열별로는 인문계 학생은 실업계 학생보다 자기발전을 위해 여가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반면에 실업계 학생은 기본전환을 위해 여가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계열별로 차이를 보였다($\chi^2 = 13.336, p < .05$).

지역별로는 제주도 거주 학생은 다른 지역의 학생보다 심신의 휴식을 위해 여가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반면에 서귀포시 학생은 기본전환을 위해 여가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남/북제주군 학생은 자기발전을 위해 여가활동이 필요하다고 높은 반응을 보였다($\chi^2 = 22.450, p < .05$). 그 외 보호자의 학력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2〉 여가활동이 필요한 이유

구 분		심신의 휴식	자기발전	기본전환	학습능률 향상	원만한 인간관계 사회적 자질향상	기타	계	χ^2 df p
성별	남	62 (19.38)	51 (15.94)	115 (35.94)	16 (5.00)	72 (22.50)	4 (1.25)	320 (100.00)	18.064 5 0.003
	여	64 (20.00)	71 (22.19)	83 (25.94)	8 (2.50)	94 (29.38)	-	320 (100.00)	
생활 수준	중상	62 (19.25)	49 (15.22)	97 (30.12)	16 (4.97)	97 (30.12)	1 (0.31)	322 (100.00)	13.199 5 0.022
	중하	64 (20.13)	73 (22.96)	101 (31.96)	8 (2.52)	69 (21.70)	3 (0.94)	318 (100.00)	
보호자 학력	국졸	21 (22.58)	16 (17.20)	26 (27.96)	2 (2.15)	26 (27.96)	2 (2.15)	93 (100.00)	19.880 15 0.177
	중졸	21 (18.26)	28 (24.35)	35 (30.43)	1 (0.87)	29 (25.22)	1 (0.87)	115 (100.00)	
	고졸	63 (18.75)	55 (16.37)	110 (32.74)	14 (4.17)	93 (27.68)	1 (0.30)	336 (100.00)	
	전문(대졸)이상	21 (21.88)	23 (23.96)	27 (28.13)	7 (7.29)	18 (18.75)	-	96 (100.00)	
계열	인문계	66 (20.63)	74 (23.13)	80 (25.00)	12 (3.75)	86 (26.88)	2 (0.63)	320 (100.00)	13.336 5 0.020
	실업계	60 (18.75)	48 (15.00)	118 (36.88)	12 (3.75)	80 (25.00)	2 (0.63)	320 (100.00)	
지역	제주시	73 (22.81)	56 (17.50)	89 (27.81)	12 (3.75)	90 (28.13)	-	320 (100.00)	22.450 10 0.013
	서귀포시	27 (16.88)	28 (17.50)	58 (36.25)	5 (3.13)	42 (26.25)	-	160 (100.00)	
	남·북제주군	26 (16.25)	38 (23.75)	51 (31.88)	7 (4.38)	34 (21.25)	4 (2.50)	160 (100.00)	
계		126 (19.69)	122 (19.06)	198 (30.94)	24 (3.75)	166 (25.94)	4 (0.63)	640 (100.0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들은 기본 전환을 위해 여가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여학생과 생활수준이 중하인 학생, 그리고 인문계 학생과 남·북제주군에 거주하는 학생은 자기발전을 위해 여가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2)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

청소년들은 자신의 여가활동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3>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3>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F 값	유의도
성별	남	320	3.04	0.96	0.56	0.5725
	여	320	3.00	0.85		
생활 수준	중상	322	3.09	0.95	1.87	0.0621
	중하	318	2.95	0.86		
보호자 학력	국졸	93	3.06	0.91	0.42	0.7411
	중졸	115	3.09	0.85		
	고졸	336	3.00	0.94		
	전문(대졸)이상	96	2.98	0.87		
계열	인문계	320	2.95	0.95	-1.96	0.0505
	실업계	320	3.07	0.87		
지역	제주시	320	2.93	0.97	5.10	0.0063
	서귀포시	160	3.00	0.90		
	남·북제주군	160	3.21	0.76		
계		640	3.02	0.91		

전체적으로 평균 3.02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학생들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남/북제주군에 거주하는 학생이 다른 지역의 학생보다 자신의 여가활동에 대해 만족하였고, 제주시 거주 학생이 가장 불만족하였으며, 지역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F=5.10, p<.01). 그 외 성별, 생활수준, 보호자 학력, 계열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들은 자신의 여가생활에 대해 그다지 만족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3) 여가생활이 불만족스러운 이유

여가활동이 불만족스러운 이유를 살펴본 결과는 <표-4>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 진학 준비로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몰라서 불만스럽다는 학생이 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여가시설의 장소 부족과 부모님의 통제와 간섭 22%, 경제적 비용 부담 17%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학생들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먼저 계열별로는 인문계 학생은 실업계 학생에 비해 여가시설의 장소 부족과 여가 시간 활용 방법을 몰라서 불만족하는 반면에 실업계 학생은 부모님의 통제와 간섭, 경제적 비용 부담, 사회적 통제와 간섭 때문에 불만족하였다($\chi^2=24.865$, p<.001). 따라서 인문계 학생보다는 실업계 학생이 부모의 통제와 경제적 비용 때문에 여가활동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성별, 생활수준, 보호자 학력,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들은 진학 준비로 여가시간 활용 방법을 몰라서, 그리고 여가시설의 장소 부족 때문에 여가생활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었으며, 실업계 학생은 부모님의 통제와 간섭, 경제적 비용 부담 때문에 여가생활에 대해 불만족하였다.

〈표-4〉 여가 생활이 불만스러운 이유

구분		부모님의 통제와 간섭	경제적 비용 부담	사회적인 통제와 간섭	여가시설과 장소부족	여가시간 활용방법을 몰라서	기타	계	χ^2 df p
성별	남	16 (21.92)	17 (23.29)	8 (10.96)	12 (16.44)	14 (19.18)	6 (8.22)	73 (100.00)	7.498 5 0.186
	여	15 (21.13)	7 (9.86)	6 (8.45)	19 (26.76)	20 (28.17)	4 (5.63)	71 (100.00)	
생활 수준	중상	17 (25.00)	8 (11.76)	5 (7.35)	12 (17.65)	20 (29.41)	6 (8.82)	68 (100.00)	6.716 5 0.243
	중하	14 (18.42)	16 (21.05)	9 (11.84)	19 (25.00)	14 (18.42)	4 (5.26)	76 (100.00)	
보호자 학력	국졸	4 (21.05)	4 (21.05)	2 (10.53)	3 (15.79)	4 (21.05)	2 (10.53)	19 (100.00)	14.621 15 0.479
	중졸	5 (25.00)	3 (15.00)	1 (5.00)	2 (10.00)	6 (30.00)	3 (15.00)	20 (100.00)	
	고졸	16 (19.28)	17 (20.48)	8 (9.64)	21 (25.30)	16 (19.28)	5 (6.02)	83 (100.00)	
	전문(대졸)이상	6 (27.27)	-	3 (13.64)	5 (22.73)	8 (36.36)	-	22 (100.00)	
계열	인문계	8 (9.76)	11 (13.41)	7 (8.54)	21 (25.61)	28 (34.15)	7 (8.54)	82 (100.00)	24.865 5 0.0001
	실업계	23 (37.10)	13 (20.97)	7 (11.29)	10 (16.13)	6 (9.68)	3 (4.84)	62 (100.00)	
지역	제주시	22 (25.29)	13 (14.94)	9 (10.34)	16 (18.39)	22 (25.29)	5 (5.75)	87 (100.00)	10.424 10 0.404
	서귀포시	8 (21.62)	4 (10.81)	4 (10.81)	10 (27.03)	8 (21.62)	3 (8.11)	37 (100.00)	
	남·북제주군	1 (5.00)	7 (35.00)	1 (5.00)	5 (25.00)	4 (20.00)	2 (10.00)	20 (100.00)	
계		31 (21.53)	24 (16.67)	14 (9.72)	31 (21.53)	34 (23.61)	10 (6.94)	144 (100.00)	

4) 여가활동에 대한 부모의 이해

청소년의 여가활동에 대한 부모의 이해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그저 그렇다에 31%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이해하신다 20%, 이해하지 못하신다 17%로 나타난 것을 볼 때, 부모들은 청소년의 여가생활을 대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로는 남학생의 부모가 여학생의 부모보다 더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여학생의 부모가 더 잘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1.923$, $p<.001$).

계열별로는 인문계 학생의 부모가 실업계 학생의 부모에 비해 자신의 자녀의 여가활동을 더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계열별로 차이를 보였다($\chi^2=11.776$, $p<.05$). 그 외 생활수준, 보호자 학력,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에 대해 부모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여학생의 부모와 인문계 학생의 부모가 다른 학생의 부모보다 이해도가 높았다.

3. 여가선용 욕구

1)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

청소년들은 충분한 여건이 주어질 때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을 살펴본 결과가 <표-5>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5> 희망하는 여가활동

구 분		사회경험을 위한 아르바이트	스포츠 활동	봉사활동	학업보충	친구와 만남	기타	계	χ^2 df p
성 별	남	129 (40.31)	65 (20.31)	8 (2.50)	10 (3.13)	93 (29.06)	15 (4.69)	320 (100.00)	30.788 5 0.0001
	여	163 (50.94)	43 (13.44)	32 (10.00)	11 (3.44)	63 (19.69)	8 (2.50)	320 (100.00)	
생 활 수 준	중상	147 (45.65)	53 (16.46)	18 (5.59)	15 (4.22)	78 (24.22)	11 (3.42)	322 (100.00)	4.327 5 0.503
	중하	145 (45.60)	55 (17.30)	22 (6.92)	6 (1.89)	78 (24.53)	12 (3.77)	318 (100.00)	
보호자 학력	국졸	40 (43.01)	16 (17.20)	7 (7.53)	2 (2.15)	27 (29.03)	1 (1.08)	93 (100.00)	28.621 15 0.018
	중졸	53 (46.81)	16 (13.91)	1 (0.87)	2 (1.74)	36 (31.30)	7 (6.09)	115 (100.00)	
	고졸	164 (48.81)	55 (16.37)	22 (6.55)	10 (2.98)	75 (22.32)	10 (2.98)	336 (100.00)	
	전문(대졸)이상	35 (36.46)	21 (21.88)	10 (10.42)	7 (7.29)	18 (18.75)	5 (5.21)	96 (100.00)	
계 열	인문계	145 (45.31)	62 (19.38)	26 (8.13)	14 (4.38)	60 (18.75)	13 (4.06)	320 (100.00)	17.016 5 0.004
	실업계	147 (45.94)	46 (14.38)	14 (4.38)	7 (2.19)	96 (30.00)	10 (3.13)	320 (100.00)	
지 역	제주시	147 (45.94)	52 (16.25)	21 (6.56)	12 (3.75)	78 (24.38)	10 (3.13)	320 (100.00)	9.316 10 0.502
	서귀포시	69 (43.13)	25 (15.63)	6 (3.75)	5 (3.13)	46 (28.75)	9 (5.63)	160 (100.00)	
	남·북제주군	76 (47.50)	31 (19.38)	13 (8.13)	4 (2.50)	32 (20.00)	4 (2.50)	160 (100.00)	
계		292 (45.63)	108 (16.88)	40 (6.25)	21 (3.28)	156 (24.38)	23 (3.59)	640 (100.00)	

전체적으로는 사회경험을 위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학생이 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친구와의 만남 24%, 스포츠 활동 17% 순으로 나타났으며, 봉사활동이나 학업보충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은 많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학생들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로는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스포츠 활동이나 친구와 만나기를 희망하는 학생이 많았고, 여학생은 아르바이트나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학생이 많았다($\chi^2=30.788, p<.001$).

보호자 학력별로는 보호자의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는 스포츠 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학생이 많았고, 중졸 이하의 학생은 친구와 만남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8.621, p<.05$).

계열별로는 인문계 학생은 실업계 학생보다 스포츠 활동과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데 비해 실업계 학생은 친구와의 만남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7.016, p<.01$). 그 외 생활수준,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가장 희망하고 있었으며, 남학생과 남/북제주군에 거주하는 학생은 친구와 만남을, 보호자의 학력이 전문대 이상인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스포츠 활동을 희망하였다.

2) 여가시설

(1) 청소년을 위한 여가시설

청소년들을 위해 확충되어야 할 여가시설에 대한 청소년들의 희망을 살펴본 결과는 <표-6>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6> 청소년을 위해 확충되어야 할 여가시설

구 분		문화시설	오락시설	공원	공연장	체육운동시설	기타	계	χ^2 df p
성별	남	33 (10.31)	120 (37.50)	35 (10.94)	42 (13.13)	83 (25.94)	7 (2.19)	320 (100.00)	77.571 5 0.0001
	여	72 (22.50)	106 (33.13)	39 (12.19)	84 (26.25)	15 (4.69)	4 (1.25)	320 (100.00)	
생활수준	중상	60 (18.63)	104 (32.30)	34 (10.56)	62 (19.25)	58 (18.01)	4 (1.24)	322 (100.00)	8.194 5 0.146
	중하	45 (14.15)	122 (38.36)	40 (12.58)	64 (20.13)	40 (12.58)	7 (2.20)	318 (100.00)	
보호자 학력	국졸	20 (21.51)	30 (30.26)	8 (8.60)	19 (20.43)	13 (13.98)	3 (3.23)	93 (100.00)	19.007 15 0.213
	중졸	14 (12.17)	45 (39.13)	17 (14.78)	22 (19.13)	13 (11.30)	4 (3.48)	115 (100.00)	
	고졸	47 (13.99)	123 (36.61)	38 (11.31)	68 (20.24)	57 (16.96)	3 (0.89)	336 (100.00)	
	전문(대졸)이상	24 (25.00)	28 (29.17)	11 (11.46)	17 (17.71)	15 (15.63)	1 (1.04)	96 (100.00)	
계열	인문계	62 (19.38)	98 (30.63)	29 (9.06)	73 (22.81)	55 (17.19)	3 (0.94)	320 (100.00)	17.797 5 0.003
	실업계	43 (13.44)	128 (40.00)	45 (14.06)	53 (16.56)	43 (13.44)	8 (2.50)	320 (100.00)	
지역	제주시	56 (17.50)	105 (32.81)	34 (10.63)	68 (21.25)	52 (16.25)	5 (1.56)	320 (100.00)	9.550 10 0.481
	서귀포시	21 (13.13)	66 (41.25)	24 (15.00)	25 (15.63)	20 (12.50)	4 (2.50)	160 (100.00)	
	남·북제주군	28 (17.50)	55 (34.38)	16 (10.00)	33 (20.63)	26 (16.25)	2 (1.25)	160 (100.00)	
계		105 (16.41)	226 (35.31)	74 (11.56)	126 (19.69)	98 (15.31)	11 (1.72)	640 (100.00)	

전체적으로 청소년을 위해 오락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학생이 3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연장 20%, 문화시설 16%, 체육운동 시설 15%, 공원 12%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학생들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로는 남학생은 여학생에 보다 오락시설이나 체육 운

제주도내 고등학생들의 여가실태 조사연구 (김 명 경 · 임 상 용)

동 시설의 확충을 희망하는데 비해 여학생은 문화시설이나 공연장의 확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77.571$, $p<.001$).

계열별로는 인문계 학생은 실업계 학생보다 문화시설이나 공연장의 확충을 희망하는데 비해 실업계 학생은 오락시설과 공원 확충을 희망하였다($\chi^2=17.797$, $p<.01$). 그 외 생활수준, 보호자 학력,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들은 청소년을 위한 여가시설로 오락시설의 확충을 가장 바라고 있었으며, 여학생과 인문계 학생은 다른 학생에 비해 문화시설과 공연장 확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근접지에 희망하는 여가시설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근접지역에 확충되길 바라는 여가시설에 대한 반응을 살펴본 결과는 <표-7>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7> 근접지 희망 여가시설

구 분		공터 정비 후 활용	체육관	박물관, 민속관	과학관	미술 전람 회장	청소년 전용 극장	공원	기타	계	χ^2 df p
성별	남	27 (8.44)	67 (20.94)	14 (2.19)	7 (2.19)	5 (1.56)	114 (35.63)	54 (16.88)	82 (10.00)	320 (100.00)	38.755 7 0.0001
	여	46 (14.38)	25 (7.81)	11 (3.44)	5 (1.56)	9 (2.81)	160 (50.00)	47 (14.69)	17 (5.31)	320 (100.00)	
생활 수준	중상	30 (9.32)	49 (15.22)	12 (3.73)	7 (2.17)	10 (3.11)	140 (43.48)	56 (17.39)	18 (5.59)	322 (100.00)	10.405 7 0.167
	중하	43 (13.52)	43 (13.52)	13 (4.09)	5 (1.57)	4 (1.26)	134 (42.14)	45 (14.15)	31 (9.75)	318 (100.00)	
보호자 학력	국졸	5 (5.38)	17 (7.53)	7 (7.53)	2 (2.15)	3 (3.23)	33 (35.48)	17 (18.28)	9 (9.68)	93 (100.00)	26.634 21 0.183
	중졸	13 (11.30)	20 (17.39)	4 (3.48)	1 (0.87)	1 (0.87)	49 (42.61)	17 (14.78)	10 (8.70)	115 (100.00)	
	고졸	40 (11.90)	43 (12.80)	9 (2.68)	4 (1.19)	7 (2.08)	152 (45.24)	54 (16.07)	27 (87.04)	336 (100.00)	
	전문(대졸)이 상	15 (15.63)	12 (12.50)	5 (5.21)	5 (5.21)	3 (3.13)	40 (41.67)	13 (13.54)	3 (3.13)	96 (100.00)	
계열	인문계	43 (13.44)	45 (14.06)	13 (4.06)	8 (2.50)	10 (3.13)	128 (40.00)	45 (14.06)	28 (8.75)	320 (100.00)	9.684 7 0.207
	실업계	30 (9.38)	47 (14.69)	12 (3.75)	4 (1.25)	4 (1.25)	146 (45.63)	56 (17.50)	21 (6.56)	320 (100.00)	
지역	제주시	39 (12.19)	49 (15.31)	8 (2.50)	7 (2.19)	9 (2.81)	137 (42.81)	42 (13.13)	29 (9.06)	320 (100.00)	22.492 14 0.069
	서귀포시	20 (12.50)	16 (10.00)	6 (3.75)	2 (1.25)	-	70 (43.75)	32 (20.00)	14 (8.75)	160 (100.00)	
	남·북제주군	14 (8.75)	27 (16.88)	11 (6.88)	3 (1.88)	5 (3.13)	67 (41.88)	27 (16.88)	6 (3.75)	160 (100.00)	
계		73 (11.41)	92 (14.38)	25 (3.91)	12 (1.88)	14 (2.19)	274 (42.81)	101 (15.78)	49 (7.66)	640 (100.00)	

전체적으로는 청소년 전용 극장의 확충을 바라는 학생이 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원 16%, 체육

관 14%. 공터정비 후 활용 11% 순으로 나타났으며, 과학관이나 미술전람회장을 갖추어지길 바라는 학생은 많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학생들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로는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체육관 확충을 희망하였으며, 여학생은 공터 정비 후 활용하거나 청소년 전용 극장 확충을 희망하였다($\chi^2=38.755, p<.001$). 그 외 생활수준, 보호자 학력, 계열,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들은 근접지에 청소년 전용 극장의 확충을 가장 희망하였으며, 남학생은 체육관 확충을 희망하였다.

3) 여가활동을 위한 개선점

청소년의 여가활동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점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8>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8> 청소년 여가활동을 위한 개선점

구 분		여가활동 시설의 확충	공원	지역별 여가활동단 체조직	여가시간 제반여건 조성	없다	계	χ^2 df p
성별	남	128 (40.00)	26 (8.13)	19 (5.94)	127 (39.69)	20 (6.25)	320 (100.00)	24.140 4 0.0001
	여	173 (54.06)	11 (3.44)	11 (3.44)	120 (37.50)	5 (1.56)	320 (100.00)	
생활 수준	중상	156 (48.45)	16 (4.97)	14 (4.35)	124 (38.51)	12 (3.73)	322 (100.00)	1.230 4 0.873
	중하	145 (45.60)	21 (6.60)	16 (5.03)	123 (38.68)	13 (4.09)	318 (100.00)	
보호자 학력	국졸	43 (46.24)	6 (6.45)	5 (5.38)	33 (35.48)	6 (6.45)	93 (100.00)	13.311 12 0.347
	중졸	58 (50.43)	12 (10.43)	4 (3.48)	36 (31.30)	5 (4.35)	115 (100.00)	
	고졸	156 (46.43)	15 (4.46)	14 (4.17)	139 (41.37)	12 (3.57)	336 (100.00)	
	전문(대졸)이상	44 (45.83)	4 (4.17)	7 (7.29)	39 (40.63)	2 (2.08)	96 (100.00)	
계열	인문계	152 (47.50)	13 (4.06)	15 (4.69)	135 (42.19)	5 (1.56)	320 (100.00)	14.442 4 0.006
	실업계	149 (46.56)	24 (7.50)	15 (4.69)	112 (35.00)	20 (6.25)	320 (100.00)	
지역	제주시	146 (45.63)	11 (3.44)	8 (2.50)	145 (45.31)	10 (3.13)	320 (100.00)	33.201 8 0.0001
	서귀포시	78 (48.75)	8 (5.00)	7 (4.38)	59 (36.88)	8 (5.00)	160 (100.00)	
	남·북제주군	77 (48.13)	18 (11.25)	15 (9.38)	43 (26.88)	7 (4.38)	160 (100.00)	
계		301 (47.03)	37 (5.78)	30 (4.69)	247 (38.59)	25 (3.91)	640 (100.00)	

전체적으로는 여가활동 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인식한 학생이 4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여가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제반 여건의 조성을 39%가 희망하였다.

이에 대해 학생들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로는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여가시간 제반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여가활동 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인식하였다 ($\chi^2=24.140$, $p<.001$).

계열별로는 인문계 학생은 실업계 학생에 비해 여가활동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실업계 학생은 공원 확충이 시급하다고 인식하였다 ($\chi^2=14.442$, $p<.01$).

지역별로는 제주시 거주 학생은 여가시간 제반 여건의 조성이 시급하다고 인식한 반면에 남/북제주군 거주 학생은 공원이나 지역별 여가활동 단체 조직 결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chi^2=33.201$, $p<.001$). 그 외 생활수준, 보호자 학력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을 위해 여가시설 확충과 여가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제반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고 인식하였다. 남학생과 실업계 학생 그리고 제주시 거주 학생은 다른 학생에 비해 여가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제반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고 인식하였다.

4) 여가교육

(1) 여가활동 지도

청소년들은 지금까지 여가활동 지도를 어디서 받았는지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여가활동 지도를 받은 적이 없는 학생이 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특별활동 24%, 씨클 13%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원 및 과외, 가정에서 여가활동 지도를 받은 학생은 적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먼저 계열별로는 인문계 학생이 실업계 학생에 비해 여가지도 활동을 받은 적이 더 없었으며, 실업계 학생은 인문계 학생에 비해 특별활동이나 씨클, 가정에서 여가활동 지도를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14.005$, $p<.01$).

지역별로는 제주시 거주 학생이 다른 학생에 비해 여가활동 지도를 받은 적이 없는 학생이 많았다. 그런데 제주시 학생은 다른 지역의 학생보다 가정에서 여가활동 지도를 많이 받았고, 서귀포시 학생은 씨클을 통해 여가활동 지도를 많이 받았으며, 남/북제주군 학생은 특별활동을 통해 여가활동 지도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22.270$, $p<.01$).

그 외 성별, 생활수준, 보호자 학력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들은 여가활동 지도를 받지 못한 학생이 많았고, 지도를 받은 학생은 특별활동을 통해 지도를 많이 받았으며, 특히 실업계 학생과 남/북제주군 거주 학생이 다른 학생에 비해 특별활동을 통해 지도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학교교육의 여가생활 기여도

학교 교육이 청소년의 여가 생활에 대한 기여도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이 2.38로 나타난 것을 볼 때, 학교 교육은 청소년들의 여가생활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먼저 생활수준별로는 생활수준이 중상인 학생이 중하인 학생보다 학교교육이 여가생활에 기여한다고 인식하였으며, 생활수준별로 차이를 보였다 ($t=2.22$, $p<.05$).

계열별로는 인문계 학생보다 실업계 학생이 학교교육의 여가생활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계열별로 차이를 보였다 ($t=-4.71$, $p<.001$).

또한 지역별로는 남/북제주군 거주 학생이 학교교육의 여가 생활에 대한 기여도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제주시 거주 학생이 그 기여도를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F=3.12$, $p<.05$). 그 외 성별, 생활수준, 보호자 학력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들은 학교교육이 여가생활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 낮게 평가하였으며, 실업계 학생과 남/북제주군 거주 학생이 다른 학생에 비해 높게 인식하였다.

IV. 논 의

1. 여가시간과 활동 상태에 따른 여가 활동 대상 분석

여가시간과 활동상태 중 여가 활동 대상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친구와 여가 활동을 하는 학생이 5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혼자 여가 활동을 하는 학생이 25%, 가족과 함께 12%로 나타났으며 선후 배나 이성친구와 여가 활동을 하는 학생도 많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학생들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로는 남학생은 친구와 함께 여학생은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여가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었으며 보호자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과 여가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인문계는 혼자 또는 가족과 실업계는 친구들과 여가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훈(1996)의 "고등학생 여가 활동에 관한 조사 연구"에서 '여가 활동의 대상'을 묻는 질문에 총 응답자 478명 중 '친구와 함께'가 221명(46.23%), '혼자서'가 205명(42.89%)으로 응답하므로써 결과를 분석해 보면 친구와 여가 활동을 하는 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느끼나, 혼자서 여가 활동을 하는 학생이 보다 적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별과 보호자 학력별, 계열별로 조사하여 선행연구보다 세밀함을 보여 대조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2. 여가시간과 활동 상태에 따른 선호하는 스포츠 종목 분석

여가시간과 활동상태 중 대중매체를 통한 여가활동에서 선호하는 스포츠 종목"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스포츠종목 중에서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1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축구 16%, 배드민턴 11%, 수영 9%순으로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율(1992)의 "한국 청소년의 여가 이용 실태와 개선 방안"에서 9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청소년이 좋아하는 스포츠는 농구 43.9%(395명), 야구 24.2%(218명), 배구 15.2%(137명), 축구 14.6%(132명), 배드민턴 1.3%(12명)등의 순서이며, 가장 즐기는 스포츠는 농구 34.6%(311명), 배구 25.8%(232명), 축구 12.9%(116명), 탁구 9.8%(88명), 배드민턴 9.4%(85명), 싸이클 3.4%(31명), 야구 1.8%(16명), 줄넘기 1.7%(11명)등의 순서이다.

이상의 결과를 비교해 볼 때 유의미한 차이가 거의 없음을 느낄 수 있으나 인문계 학생들은 농구(19%)를 좋아했고,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축구(16%)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러 종목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소 선호도가 달라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가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배구의 후진성과 축구의 선호성이 팔목할 만 한데 우리나라와 일본의 공동개최인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대체로 구기를 좋아함을 알 수 있으며, 그 가운데 특히 "농구"를 좋아하는 것은 넓은 공간이 필요치 않으며, 많은 장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3. 여가시간과 활동 실태에 따른 1년간 독서량 분석

송영란(1997)의 “청소년의 여가 선용 방법 연구”에서 살펴보면 337명의 연구조사 학생수 중 31.5%(106명)가 1년간 1~2권, 25.8%(87명)가 3~4권, 11%(37명)가 5~6권, 22%(73명)가 7권이상 책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책을 1권도 읽지 않았다는 학생도 10%(34명) 정도이다. 여가시간과 활동실태 중 1년간 독서량을 살펴본 결과로는 지난 1년간 교과서나 참고서 외 책을 1~2권 읽은 학생이 31%(196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 7권 이상 24%(151명), 3~4권 21%(136명), 없다 15%(99명), 5~6권 9%(58명)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인문계 학생은 7권 이상 책을 읽은 학생이 가장 많은 반면에 실업계 학생은 1~2권 읽은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책을 읽지 않은 학생은 인문계 학생보다 실업계 학생이 더 많은 것을 볼 때, 인문계 학생들이 실업계 학생보다 책을 더 많이 읽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 나라 청소년들은 교과서, 참고서 이외에 책을 잘 읽고 있지 않다는 것을 위의 비교분석에서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다양한 서적을 통한 폭넓은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독서지도가 필요하며, 그 가운데에서 양질의 작품을 선별하고, 분명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비판적 교육을 위한 독서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4. 여가활동 만족도에 따른 여가활동의 필요성 분석

서영석(1996)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생의 여가 활동에 관한 비교 분석 연구”에서 총 992명을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여가활동을 위하여 매우 필요하다 553명(55.7%)으로 가장 많았고, 필요하다 430명(43.3%), 전혀 필요하지 않다 5명(0.5%), 별로 필요하지 않다 4명(0.4%)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 여가활동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었으나, 이에 여가 활동 만족도에 따른 여가 활동의 필요성에서 인문계와 실업계고등학생들은 여가활동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살펴 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기분전환을 위해 여가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학생이 3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원만한 인간관계 및 사회적 자질 향상 26%, 심신 휴식 20%, 자기 발전 19%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학습능력향상을 위해 여가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4%로 비교적 적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가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보이며 여가 활동의 필요성을 우리의 청소년들은 절실히 느끼고 있다 하겠다.

5. 여가선용 욕구에 따른 여가시설 분석

청소년들을 위해 확충되어야 할 여가시설에 대한 청소년들의 희망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청소년을 위해 오락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학생이 3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연장 20%, 문화시설 16%, 체육운동시설 15%, 공원 12% 순으로 나타났다.

송영란(1997) “청소년의 여가선용 방법연구”에서 오락시설(30.8%)과 체육운동시설(30.6%)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도서실, 회관, 캠프장 등의 문화시설(18.7%), 공원(10.9%)의 순서이다. 이상의 결과를 비교해 볼 때 인문계와 실업계학생들은 오락시설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그 밖의 질문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청소년의 변화된 흥미를 관리하여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부적합하다고 여

겨은 디스코텍, 공연장 등도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전용시설을 마련 운영되는 방법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권이종(1991)은 서구사회에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춤이 우리나라에서는 유흥장에서 음성적으로 성행되면서 문란한 이성문제, 음주, 흡연 행위 등과 관련되어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을 지적하여 우리 사회에서도 춤과 같은 오락행위를 공공시설이나 청소년의 여가를 위한 센터, 교육기관, 유스호스텔, 청소년 회관 등에서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계획, 운영하여 양성화하고 건전하게 육성한다면 오히려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으로서 크게 각광을 받을 수 있고, 긍정적인 방향의 효율성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성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청소년의 흥미가 배제된 시설이 아닌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유인하여 수용할 수 있는 시설마련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문화 형성 방안을 모색하고, 청소년들의 여가문화 정착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주도 소재 인문계·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은 공부시간 외 TV나 라디오를 주로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특히 여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여가생활을 하고 있었다. 또한 여가시간은 여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이 남학생과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보다 많았다.

둘째,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여가활동에 대해 만족하는 학생보다 불 만족하는 학생이 많았는데, 부모들은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남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의 부모의 이해도가 낮았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는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여가선용을 위해서 가족구성원과 함께 여가활동의 기회를 가져야 하며, 부모들은 건전한 여가 관을 형성해야 한다.

셋째, 상당수의 청소년들은 여가활동 지도를 받지 못하였으며, 실업계 고등학생은 특별활동을 통해 지도를 많이 받았다. 또한 청소년들은 학교교육의 여가생활에 대한 기여도도 낮게 평가하였는데, 특히 인문계 고등학생이 낮게 인식하였다. 따라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학교교육을 통한 여가교육이 절실히 요망되며, 체육과 같은 교과목이나 특별활동을 통하여 여가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넷째, 청소년들은 문화시설과 공연장, 청소년 전용 극장, 체육관에 대한 욕구가 높았는데, 특히 남학생은 체육관 확충을 희망하였고, 여학생과 인문계 고등학생은 문화시설과 공연장 확충에 대해 높은 욕구를 보였다. 따라서 청소년이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지역단위의 여가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며, 청소년을 위한 공연장, 청소년 전용 극장 등의 문화공간과 체육관이 시급히 확충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들은 특히 성별과 계열변인에 따라 여가활동과 의식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여가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요구된다.

첫째,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국가는 유기적 연대를 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둘째, 성인들은 청소년들의 여가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청소년들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여가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 문헌

- 권두승·오치선(1991). "청소년 여가의 교육적 의의에 관한 일 고찰," 「교육문제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권이종(1989). 「청소년 문화와 정책」, 배영사.
- 권이종(1991). 「청소년의 두 얼굴」, 중앙교육연구소.
- 김광득(1993). 「현대 여가론」, 백산출판사.
- 김명정(1981). 「수도 교육」, 서울시교육위원회.
- 김명조(1990). "여가활동을 통한 건전생활의 실천 방안," 「사대논문집」, 제21집,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 김병천(1992). "청소년의 여가와 비행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김영훈(1996). "고등학생 여가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교육대학원.
- 김진섭(1989). 「관광학원론」, 대왕사, p. 21.
- 박수진(1997). "고등학생의 여가활동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종율(1993). "한국청소년의 여가 이용 실태와 개선방향,"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교육대학원.
- 방우정(1995). "청소년의 여가활동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영석(1996). "인문계와 실업계고등학생의 여가활동에 관한 비교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1996.
- 손영옥(1993). "국민학교 아동의 성별과 생활정도에 따른 여가활동 실태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송영란(1997). "청소년의 여가선용 방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 유재환(1978). 「Webster사전」, 민중서관.
- 이순덕(1994). "청소년의 여가문화에 대한 조사,"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춘재(1994). 「청년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 임번장(1991). "청소년이 여가활동에 있어서 스포츠의 가치," 「스포츠과학」, 37호.
- 임혜정(1993). "청소년의 여가생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천홍범(1992). 「교육사회학」, 정민사.
- 청소년대책위원회(1981). 「청소년백서」, 국무총리기획조정실.
- 한국관광공사(1985). 「국민 여가 생활의 실태 분석과 대책」.
- Kaplan, M.(1975). *Leisure : Theory and policy*. New York : John Wiley and Son Inc.
- Kraus, Richard(1990). *Recreation and Leisure in Modern Society*. 4th ed. London : Scott, Foresman and Company.